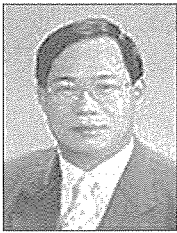




Planning special [2] 기획특집



박치봉 부장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I. 들어가며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식품이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홀이 다룰 수 없다. 더구나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자리 잡은 웰빙 문화는 소비자로서 하여금 식품의 질과 안전성 확보에 관심과 반응이 뜨거워진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지난 6월 1700여명의 초·중등 학생들의 점심급식에 발생한 식중독 파문은 식품의 위생과 안전 관리시스템의 부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일 것이다. 먹고 탈이 난 사람은 있으나 어디에서부터 어떤 원인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총체적 원인을 제대로 규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럽에 이어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한 소의 광우병은 인간에게까지 질병을 옮기고 있어 공포와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각국에서는 축산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등으로 축산물 위기대처와 안전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광우병의 경우 다른 가축의 전염병과 달리 잠복기간이 2년부터 8년까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소의 이동사항 등을 과거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므로 소 한마리마다 태어난 곳, 이동지역 등의 소재 정보를 일괄적으로 전산 관리해 환축 발생시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육생산과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식품 구매 시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값이 비싸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 아래 식품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2004년부터 한우 브랜드를 대상으로 쇠고기이력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전 두수에 대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 소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한우 종합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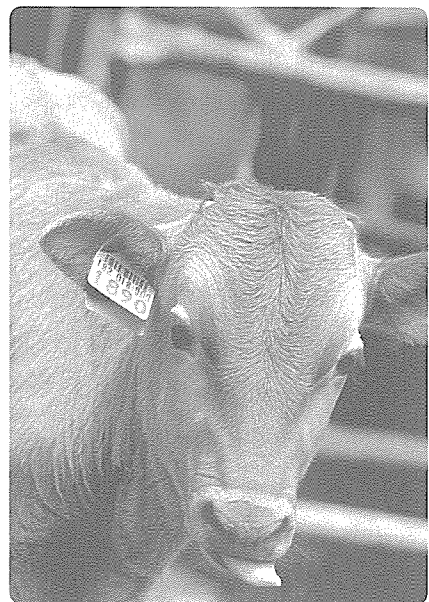
II. 주요국의 소 이력추적제도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는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 일본의 추진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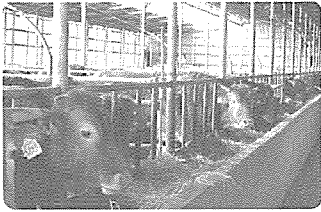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송아지 생산단계의 이력관리와 유통단계의 이력관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송아지 생산의 이력관리는 '03.12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생산단계의 귀표 장착 및 신고는 생산자 노령화 등으로 농협의 지원을 받아 하고 있다. 출생 및 이동에 따른 신고는 팩스, 전화 자동응답 장치, 인터넷 등을 이용한다.

유통단계 이력관리는 생산단계보다 1년 늦게 실시되었으며 농가가 출하우의 육성이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도축장에서는 내용의 일치성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소가 계류장을 들어오면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확인하여 도축번호와 일치시킨다. 일본 식육격부협회에서는 DNA 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DNA 분석센터로 보내게 된다. 소비자는 이러한 쇠고기의 이력을 정육점에 비치된 터치스크린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호주의 추진사례

호주는 1998년 EU로부터 쇠고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호주에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개체별 이력정보요청에 의해 실시하게 되었는데 주정부의 주도하에 국가가축식별시스템(NLIS)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모든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



를 장착하고 생산에서 도축(가공장)까지의 이동사항을 신고, 관리하고 있다. 소 이동시 농가는 소의 개체정보가 수록된 출하 증명서를 발급 및 보관하고 이동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한다. 국가가축 개체식별시스템을 기반으로 가축이동, 질병 및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산 농가가 도체정보 검색으로 가축 개량 등에 활용한다. 국가가축개체식별시스템은 도축단계까지만 이력관리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통제하고 질병 및 잔류물질 등에 의해 생긴 문제는 이를 추적하여 해결하며, 도축단계 이후의 이력관리는 업계 자율로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나라의 사례로 볼 때 이력추적제도는 귀표장착 및 이동 신고 등의 업무를 양축 농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력추적 범위 및 내용을 최소화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Ⅲ. 농협의 한우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지원

국내에서 이력관리는 '04년도 10월에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한 후 점차 확대하여 '06년 5월에는 17개 브랜드 경영체의 지역과 전국 49개 판매장에서 시범 실시중이며 '08년도에는 전 개체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농협에서는 쇠고기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공통관리와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하반기에 한우개량사업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내년도에 가축 시장시스템을 추가 개발하여 소 개체 이동내역을 최대한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소 개체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암소 70여 만두와 이들 암소가 생산할 송아지를 합할 경우 우선 연간 120여 만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금년 하반기에 개발되는 또 다른 하나는 한우경영관리 시스템으로 농가의 사양관리지원 및 경영관리사항을 지원하여 농가는 자신이 사육하는 소의 생산성을 파악하여 지속 사육할 것인지 아니면 출하 할 것인지 농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선축협에서 소 사업별 각각의 시스템으로 소 개체 및 농가 관리시 각각 전산 등록하던 것을 시스템 통합으로 한 번의 등록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하여 효율화시킴으로써 양축지도에 더욱 전념토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쇠고기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이 전면 도입되기까지는 2년 남짓 시간이 남아있다. 정부에서는

2007년도에 법제화하고 2008년도에 전면 실시한다고 한다.

전면실시에 대비한 농가 및 각 참여기관에 대한 세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초기의 혼란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금년에는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간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르며 특히 축산업에 있어서는 커다란 시련이 아닐 수 없다. 고급육인 미국산 쇠고기가 홍수처럼 밀려오기 전에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우고기가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길러지고 어디를 통해서 내가 지금 먹는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다면 소비자는 안전하게 믿고 한우고기를 소비할 것이다.

농협이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이 국내 쇠고기 생산이력제도에 활용되어 농가에게는 농장경영을 지원하며 소비자에게는 쇠고기가 안전하게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해 본다.



IV. 맺으며

한우이력시스템의 활성화는 위생상 문제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의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광우병 등 각종 질병발생시 환축의 이력을 추적 또는 소급하여 동거 소 등에 대한 신속한 격리조치 또는 매몰처리를 가능토록 한다.

또한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로 국내 한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둔갑 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소비자는 음식을 대할 때 '양' 보다는 '질' 을, '더 많이' 보다는 '더 좋은' 또는 '더 안전한' 것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꼼꼼히 따진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기관과 농협, 기업, 시민단체 등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식품의 생산, 인증, 유통, 사후 검증까지 전 단계의 책임을 다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우리 한우의 안전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로서 수입 쇠고기와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로 하루 빨리 전 한우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㉞